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예수님의 살과 피

성경: 요한복음 6장 47-58절

Tag: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6:47-58)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다.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있는 최후의 만찬중에 있는 성찬식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길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강조 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각 되겠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였다.

수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때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군중은 밀려드는데, 마땅히 식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셨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산으로 피신하였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였고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 제자들의 배로 다가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새 예수님이 계시는 건너편까지 몰려왔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유월절, 유월절 식사, 광야에서의 만나와 어린양의 피에 관한 이야기와 어울어져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성찬식은 유월절 식사와 연관이 있지만, 또 유월절 식사를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성경의 유월절 식사가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성찬식은 본체인 셈이다.

성찬식의 핵심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에 대한 구약의 그림자는 유

월절에 먹던 누룩없는 빵과 포도주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비교하셨다.

매우 쉽고도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이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 때문이라고 하셨다.

즉,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떡을 먹은 사건을 하나님의 표적-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깨닫기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에 관심이 깊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다. 어떻게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군중을 골라 선택하시는 셈이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러 군중들이 선호할 수 없는 말씀을 나열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믿겠다는 자들을 좋아하시느냐? 그것은 아니고, 군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이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기적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전설이 아닌), 그러므로 기적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을 선택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울골은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예수님은 연예인이 아니시다. 무작정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라 하고, 인기 높이는 멘트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히려 세속적으로 높아지는 인기에 대해서 몹시 경계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대중들이 싫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이해하기 싫어하는 말씀이다.

결과적으로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열두 제자들마저 떠나려는 눈치를 보이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물으셨고,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간신히 위기를 넘기는 말씀을 드렸다.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임을 깨달았다. 영생의 말씀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메시아, 그리스도) 이신 줄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족하시고,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 하셨다.(그러나 너희 중에 한명은 마귀니라)

\*핵심 구절 설명.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해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는자가 곧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시다. 말씀이 곧 인격체/신격체시고, 만물의 근원임을 서두에 미리 선포하고 시작하였

다.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1:1)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곧 보혜사 이심을 믿는 믿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곧 진리 그 자체이시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진리 그 자체라는 믿음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라서 예수님을 믿는게 아니다. (이해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이 모두 진리라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이 드디어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하시고 신이 되신게 아니다.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마다, 곧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일 뿐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메시아라면 결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리 없다’는 이상한 율법주의를 들먹이면서 기적을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능력 많은 선지자(엘리아나 엘리사)의 선지자 노릇으로 애써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던 자들의 후손일 뿐이었다. 그런 자들에게 거침없는 예수님의 말씀은 일종의 신성모독스러움을 유발하는 발언들이었다.

###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수학 공식이 아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이라는 의미다.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수준이 아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임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와 비교 하시면서도 만나보다 훨씬 뛰어난 영생을 주는 떡(말씀)임을 강조하신 말씀.

-만나도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광야생활 하는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만나는 결코 영생을 주지 않는다.

-영생은 곧 예수님이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이 떡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 먹는 것이고, 몸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는 것이고, 사람마다 영혼에는 오직 하나의 귀가 있는데 우리는 그 귀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영생이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의미한다.

-영혼에게 양식이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을 때(먹을 때) 그 사람의 영혼에 양식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입으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곧 영혼의 양식이 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요한의 신앙고백을 기억해야 한다.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보내신 떡, 곧 예수님 자신을 가르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1절 말씀이 유월절 식사의 본질이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 말씀의 그림자이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언적 절기인 썸이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린 썸이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 주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야만스러운 짓으로 해석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은 재차 여러번 귀에 못이 박이도록 연거푸 말씀 하셨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6:47-58)

어느 복음서에도 이렇게 강력하고 확신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곳은 없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가진다.

이제 남겨진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  
밖에 남지 않았다.

영생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성찬식은 바로 이런 믿음에 대한 신앙고백인 썸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지만, 요한복음에는 하나  
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신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등  
장하는 복음서이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 들이고, 영생을 확  
신하는 시간이 되자.

하나님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믿는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성령님  
도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요한일서 성경공부      성경: 요한일서 1장

Tag:

## 1. 요한문헌과 요한공동체의 이해

신약성서 중 유일하게 복음서와 서신이 모두 존재

가장 쉬운 표현과 단순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 심오한 이해로 나아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와 핍박(요일 4:18)

공동체의 분열(요일 2:19) - 영지주의적 이단의 발흥

## 2. 요한일서 - 사랑과 사권의 서신

일반적인 서신의 구조가 아님(저자와 수신자 언급, 감사, 작별인사, 축복 등) - 구조 파악이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강조(1:1-4, 2:7, 4:2 등)

참된 성도란 누구인가? - 하나님과의 사귄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

### 3.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2:9-11)

교회를 떠난 분리주의자(2:19)

교회의 신앙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과 연대해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2:26)

부도덕적인 삶을 사는 자(3:4-10)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4:3)

### 2. 배경(성경공부 시리즈 - 요한서신 에서)

최근 한국 교회의 성장에 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교인의 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난 수년 동안 기독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실추된 데 있다. 여러 대형 사건에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었고, 심지어 지도자층인 목사들의 금전 비리나 스캔들까지 공공연하게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곤 한다.

초대 교회 시절과는 달리 작금의 한국 교회는 도덕적으로 급격히 타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명목상의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요한서신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쓰인 편지들이다. 요한은 말과 행동이 상호 모순되는 이들의 거짓 주장들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신앙 고

백에 걸맞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 요한일서의 배경

요한일서는 주후 85-95 년경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 쓰였다. 그 편지는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 회람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거짓 교사들은 초기 이단 중 하나인 영지주의를 신봉했는데, 그들은 물질은 전적으로 악하고 영은 전적으로 선하다고 가르쳤다. 그 결과 다음 두 가지의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다.

**첫째,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에 의해 오염될 수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된 것을 믿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신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가르쳤는데, 이 견해는 **‘가현설’(Docetism)**이라 불린다. **또 다른 이들은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세례 시에 내려왔다가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그분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케린투스주의(Cerinthianism)**로 알려져 있다. 후자의 견해가 요한일서가 쓰인 배경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는, **새로운 도덕을** 제정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영적 체험의 매우 고차원적인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완전성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발달에 있어서 덜 성숙한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것도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윤리적인 판단이 더 이상 상관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한때는 요한서신이 독자들과 활발히 교제를 나누던 이들이었다는 사실이다(2:19).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가르침이 사도적인 복음 진리와 너무나 배치되었**

기 때문에 그들은 참 신자들과 결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그 교제권에 남아 있던 참 신자들은 이 교사들의 이탈로 인해 흔들리고 불안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 다시 확신할 필요가 있었으며,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정체가 노출되어야 했던 것이다.

상기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거짓 주장하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일련의 테스트를 제공한다. 먼저 요한은 ‘새로운’ 신학에 대응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라는 교리적인 테스트를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에 대응해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도덕적인 테스트를 제시한다. 끝으로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가?’라는 사회적인 테스트를 제시한다.

사실 요한일서 전체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 각각은 세 개의 독립된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서문에 이어 첫 번째 단락(1:5-2:27)이 나오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2:28-4:6)과 세 번째 단락(4:7-5:12)이 등장한다. 그리고 결론 부분(5:13-21)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란 주제를 재창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과 구조를 유념할 때 중요한 점은, 요한일서에서 대비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한다. “요한의 논점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 신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영생에 대해 주지시키려 하면 동시에 불신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을 보여 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목적은 참 신자들에게 바른 확신을 확증시켜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짓 신자들의 잘못된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